

# ‘앗! 뜨거’ 펄펄 끓는 KIA의 스토브리그

‘호랑이 군단’의 스토브리그가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어느 해 보다 분주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다.

‘변화’가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지난 시즌 9위를 기록하면서 과정·결과 모두 낙제점을 받으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타이거즈 첫 외국인 사령탑이었던 윌리엄스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고, 사장과 단장까지 모두 교체했다. 현장에만 책임을 묻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프런트도 문책 대상에 포함돼 파격적인 내부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FA 시장에서 단연 화제의 팀이 됐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양현종이 우여곡절 KIA로 복귀했고,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였던 나성범을 ‘깜짝 영입’하면서 투타 보강이 이뤄졌다.

리빌딩이 아닌 ‘성적’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변화도 더해졌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용하고 있는 영상 기반 데이터 트레이닝 장비 ‘호크아이’를 도입했고, 리그에서 정상급 마무리로 활약했던 손승락을 데이터 활용도를 키울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로 불러들였다.

‘부상 병동’의 오명을 벗고 최상의 경기력을 만들기 위해 스트렝스&컨디셔닝(SC) 코치 2명을 영입했고, SC와 심리 분야 전문 위원도 위촉했다.

감독 이어 사장·단장까지 모두 교체  
“리빌딩 아닌 성적” 시스템 변화  
양현종 복귀·나성범 영입 ‘투타 보강’  
데이터 트레이닝 장비 ‘호크아이’ 도입  
외국인 선수도 3명 모두 교체  
전력강화 작업·캠프 준비 순조  
연봉 협상 마무리 최우선 과제

변화의 물결 속 스프링캠프 준비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올 시즌에도 광주 챔피언스필드와 함평 헬리콥터 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게 된 KIA는 최종 명단을 조율하고 있다.

새 외국인 선수들도 새 시즌 준비로 바쁘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했다.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 오른손 투수 로니 윌리엄스, 왼손 투수 션 놀런으로 2022시즌 KIA 외국인 선수 구성이 마무리됐



양현종 나성범

다. 비자 발급은 완료됐고, 이들은 21일과 25일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도 있다. ‘연봉협상’이 KIA가 풀고 있는 최우선 과제다. 아직 계약을 마무리 못 한 선수들이 있다.

KIA는 팀 순위가 총연봉의 기준이 된다. 팀 성적에 따라서 연

봉 총액이 달라진다.

지난 시즌 KIA는 9위를 기록하면서 2020시즌보다 3계단이나 추락했다. 그에 비례해 연봉 총액도 감소하면서 선수들의 파이가 줄었다. 개인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받은 선수들이 있다.

FA 선수, 외국인 선수와 같이 고액 연봉자들은 팀 성적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팀 성적에 따른 연봉 바램은 저액 연봉자들에게 더 거세게 부는 시스템이다.

그만큼 구단도 선수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팀워크에 영향을 주는 만큼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 선수들도 현 시스템을 이해하지만 아쉬움은 어쩔 수 없다.

캠프가 압박한 만큼 조만간 연봉 협상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신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KIA는 연봉 고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민과 변화도 고려하고 있다.

전력 강화를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김중국 감독 취임사에서 장정석 단장은 “보완은 끊임이 없는 것 같다.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했고, 실제로도 트레이드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 포지션에 국한한 것이 아닌 팀 전체 전력을 고려한 영입 움직임은 시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시상식에서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왼쪽·폴란드·바이에른 뮌헨)가 트로피를 들고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레반도프스키 ‘FIFA 올해의 선수’ 선정

손흥민, 레반도프스키 1위 선정  
벤투 감독은 조르지뉴에 투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폴란드·바이에른 뮌헨)가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남자 선수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레반도프스키는 18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FIFA 시상식에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파리 생제르맹)와 무함마드 살라흐(이집트·리버풀)를 따돌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레반도프스키는 2021년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만 43골을 터뜨려 게르트 뮐러가 1972년에 세운 연간 42골 기록을 49년 만에 경신했다.

이 상은 FIFA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 팬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수상자를 정하는 데 레반도프스키는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에서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모두 1위에 올랐다. 다만 팬 투표에서는 최하위인 3위에 머물렀으나 이 4개 부문 투표 결과를 포인트로 환산한 최종 점수에서 48점을 얻어 44점의 메시, 39점의 살라흐를 앞섰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FIFA 올해의 선수 최

종 후보 3명에 들지 못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A매치 통산 112골을 터뜨려 이 부문 신기록을 세운 공로로 특별상을 받았다.

FIFA 올해의 여자 선수로는 알렉시아 푸테야스(스페인)가 선정됐다. 푸테야스는 올해 발롱도르와 FIFA 올해의 여자 선수를 석권했다.

FIFA와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가 공동 선정한 올해의 남자 베스트 11에는 잔루이지 폰나툼마(이탈리아·밀라노), 다비드 알라바(오스트리아), 레오나르도 보누치(이탈리아), 후벵 디아스(포르투갈·이상 수비수), 케빈 데브라우너(벨기에), 조르지뉴(이탈리아), 은골로 캉테(프랑스·이상 미드필더), 호날두, 윌리엄스(노르웨이), 레반도프스키, 메시(이상 공격수)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남녀팀 감독상은 헝가리 사령탑인 토마스 투헬(독일)과 에마 헤이스(영국)가 수상했다.

올해의 골인 푸슈카시상은 지금은 세비야로 이적한 에릭 라멜라(아르헨티나)가 토트넘에서 뛰던 지난해 3월 아스널전에서 넣은 골이 수상작이었다. 라멜라는 페널티 지역 안에서 루카스 모라

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오른발 뒤로 꼬아 슈팅하는 라보나키어로 땅볼 슛을 날려 득점을 뽑아냈다.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선택도 레반도프스키였다. FIFA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세부 투표 결과에서 손흥민은 올해의 남자선수 부문 1위 표를 레반도프스키에게 행사했다.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에게 2위, 은골로 캉테(헝가리)에게 3위 표를 던졌다.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은 조르지뉴(헝가리)에게 1위 표를 줬다. 벤투 감독의 2위는 캉테, 3위는 메시였다.

박항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킬리앙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메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순으로 투표했다.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뽑은 1~3위는 살라흐, 레반도프스키, 캉테였다.

손흥민은 올해의 남자 감독을 뽑는 투표에서는 소속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1위로 뽑았다. 2위는 토마스 투헬(헝가리), 3위는 페르 프랑크리치(맨체스터 시티) 감독이었다. 벤투 감독은 투헬, 로베르트 만치니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 리오넬 스킵 로니 아르헨티나 감독을 1~3위로 선택했다.

/연합뉴스

## 광주FC, 192cm 장신 골키퍼 노희동 영입

광주FC가 신예 골키퍼 노희동(19·사진)을 김해시청에서 영입했다.

광주는 지난 시즌 김해시청에서 활약한 골키퍼 노희동과 신인 자유계약을 맺었다.

192cm 장신의 노희동은 큰 키를 활용한 공중볼 캐치와 1대 1방어에서 강점을 보이며, 뛰어난 반사신경도 갖추고 있다.

노희동은 2017년 제 53회 추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서 대구 대륜중을 우승으로 이끌며 최우수 골키퍼상을 수상했고, 강원 흥천 안정환FC U-18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워왔다.

침착한 플레이와 안정적인 수비로 2020 강원 지역 전국고등축구리그 준우승이 주역이 되며 골



퍼 상을 수상한 그는 2020 금강대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4강도 견인했다.

그리고 2021년 K3리그 김해시청에 입단해 실력을 쌓아왔다.

노희동은 “꿈에 그리던 프로에 데뷔하게 돼 벅차고 설렌다.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드래곤즈, 대전서 공격수 박인혁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분데스리가 경험을 갖춘 공격수 박인혁(27·사진)을 대전하나티스에서 영입했다.

박인혁은 구로중, 영등포공고를 거쳐 경희대에 진학한 뒤 2015년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에 입단했다. 이후 프랑크푸르트, 코페르, 보이보디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2018년 대전으로 이적하며 국내로 복귀했다.

박인혁은 2021시즌까지 K리그 통산 100경기 이상과 17득점 6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U-20, U-23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한 박인혁은 빠른 스피드와 판단력으로 침투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또 부드러운 볼 터치와 드리블 능력을 갖춰, 전방에서 볼을 지키고 동료들과



주요 받는 연계플레이에 능한 최전방 공격수다.

박인혁은 “전남드래곤즈라는 역사가 있고 FA컵 4회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스럽고, 저의 능력을 높이 사고 영입해 주신 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치려야 할 여러 대회가 있지만, 팀이 리그에서 우승을 통해 다 이력대로 승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시우, PG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출전

2연속 우승 도전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760만 달러)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김시우는 21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에서 열리는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출전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스타디움 코스(파72·7113야드), 니클라우스 토너먼트 코스(파72·7159야드), 라킨타 컨트리 클럽(파72·760야드) 등 3개의 PGA 웨스트 코스를 돌며 1~3라운드를 치른 뒤 스타디움 코스에서 최종 라운드를 치르는 기존 방식으로 대회를 치른다.

지난 대회에서는 스타디움 코스와 니클라우스 토너먼트 코스 두 곳만 사용했다.

김시우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를 때려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통산 3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던 김시우는 3년 8개월 만에 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오랜 우승 갈증을 씻어냈다.

이번 대회에서 김시우가 우승하면 1975~1976

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조니 밀러(미국) 이후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첫 번째 선수가 된다.

지난해 10월 조조 챔피언십에서 공동 18위에 오른 김시우는 새해 처음으로 출전한 샌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공동 23위를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하지만 16일 소니오픈에서는 공동 55위에 머무르며 부진했던 만큼 반전이 필요하다.

김시우 외에 강성훈과 노승열, 이경훈, 임성재 등 4명의 한국 선수도 출전한다.

임성재는 최근 3년간 이 대회에서 공동 12위, 공동 10위, 공동 13위로 선전해 이번 대회에서는 그 이상의 순위를 바라본다.

더그 김, 제임스 한, 존 허(이상 미국), 대니 리(뉴질랜드) 교포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지난해 일본프로골프투어 상금왕에 오른 미국 교포 김찬도 초청을 받았다.

지난 대회에 불참했던 세계 랭킹 1위 은 램(스페인)이 2년 만에 출전해 2018년 이후 두 번째 대회 우승을 노린다.

여기에 지난 대회 준우승자 캔틀레이도 김시우와 함께 다시 타이틀 경쟁에 나선다.

세계 랭킹 10위권 선수들 중에서는 램과 캔틀레이(4위)만 출전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